

News

5대 금융그룹 1분기 실적 5조 돌파…주주환원 '적극'

e대한경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금융그룹, 1분기 순이익 총 5조 2,362억원 집계… 분기당 이익 5조원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KB가 1조 4,531억원으로 리딩뱅크 수성 NIM 확대로 인한 이자이익 증가 영향이 커… KB는 올해부터 분기 배당 정례화… 신한도 1분기 포함 나머지 분기에도 지속 배당할 것으로 보여… 하나는 1,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집값 꿈틀하자 가계대출 감소세 멈춰

조선비즈

5대 시중은행의 21일 기준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 4,484억원으로 집계… 지난달 말과 비교해 2,547억원 증가… 특히 주담대가 507조 1,182억원으로 4,008억원 증가 4월 말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불과 6일 정도 남은 만큼 이달 가계대출이 3월보다 늘어난 채 마감될 가능성 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른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기대 영향 분석

“시중은행에 따라잡히겠네”…인뱅도 수신금리 인상 ‘만지작’

뉴스투데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수신금리 인상 여부와 인상폭 등에 대한 검토 진행 중… 수시입출금식 통장만 운영 중인 토스뱅크는 수신금리 인상 계획 없어…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4%p 인상… 아직 결정되진 않았으나 인상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 나와… 수신금리 연쇄이상으로 격차 좁혀졌거나 역전 때문

금리인하요구권 취급 제각각… '시중은행, 수용대출액 크고'·'인터넷은행, 건수 많고'

이투데이

작년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70,560건, 수용대출금액은 5조 4,244억원으로 집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15만 5,213건, 2조 3,457억원 인터넷은행이 기준 시중은행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수용건수 모두 많으나 수용률이 낮은 현상… 실제 조건 확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기 때문

RBC '비상'인데 보험료 인하하라고? …안절부절 생보사들

한국경제

금융감독원, 최근 생보사들에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 산출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 자체 점검 요청… 시장금리 오름에도 보험료는 요지부동이라는 가입자 불만 속출 때문 다만 생보사들은 손보사들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운용 수익 증대 효과가 아직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 RBC 관리에 애로 겪고 있기 때문

후순위채 이어 유상증자까지…NH농협생명, 1조 자본확충 나선다

연합인포맥스

NH농협생명, 농협금융지주 상대로 3,750억원 규모의 증자 방안 확정… 이번 증자 주금납입은 오는 26일에 완료될 예정 완료시 NH농협생명의 자본확충금액은 올해 들어서 1조원 수준에 육박 예상…작년 꾸준히 오름세 지속한 채권금리가 올해 들어 상승 폭을 급격히 키우고 있기 때문

코인·세제지원·공매도…국정과제 담길尹 자본시장 정책은

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세제 인하 꾸러미가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관심…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는 절충안 제시 전망 가운데 가상자산 비과세는 이견 없어…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불법 공매도부터 손 불 예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검토… 현실적으로 전면 폐지 쉽지 않아…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돼 과세범위 확대

작년 증권사 해외 현지법인 순익 62% 급증…3천627억원 벌어

연합뉴스

작년 증권사 해외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60% 넘게 급증하며 3,627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 홍콩과 베트남 등 7개국에서는 위탁·인수 수수료 수익과 이자수익 증가해 흑자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 제한과 판관비 증가로 적자…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이 15곳으로 해외점포 수가 가장 많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